

# “엄마의 손맛 함께 나누고 싶었죠”

김수미, '수미네 반찬' 서 집밥 레시피 선보여 눈길  
출연진과 찰떡 호흡 ... “더 먹이고 싶어서 퍼주게 돼”



“힘이 펴질 난다니까.”

끊임없이 들어오는 작품도 마다하고 tvN 예능 ‘수미네 반찬’에 ‘올인’하며 연예계 소문난 집밥 실력을 발휘 중인 배우 김수미(본명 김영옥·68·사진)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잘질’ 육을 구사하는 모습이 익숙한 김수미는 ‘수미네 반찬’에서만 큼은 엄마 모습 자체다. 실제로 그는 요리할 때마다 일찍 먼저 보낸 어머니를 그린다고 했다.

“내게 가장 행복한 추억이 연기대상 타고, 다 아아몬드 샀던 게 아니라 어릴 적 시골집 평상에서 갑나무, 꽃, 장독대 보면서 엄마가 해준 밥 먹었던 거예요. 부엌에서 들리던 도마질 소리, 강된장 끓는 냄새... 엄마가 보고 싶을 때면 엄마 음식이 늘 같이 생각났죠. 그래서 그 요리를 따라 하다 보니 이렇게 판이 커졌어.”

그는 “어릴 적 결혼질로 본 엄마 요리를 따라 하다 보면 그 촉과 맛이 딱 되살아난다”며 “한 사람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자주 퍼주게 되지만 한계가 있는데, ‘수미네 반찬’을 하면서 그 꿈을 이뤘다.” 고 말했다.

할머니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정량화한 레시피 없이 “간장 요란치, 참기름 획획” 하면서 요리하는 모습에 주부는 물론 남녀노소가 ‘수미네 반찬’을 통해 요리에 친숙해진다. 특히 갈비찜, 잡채, 모듬전 등 명절 요리 레시피를

‘대방출’한 추석특집은 시청률 6%(닐슨코리아 유료가구)를 넘기며 사랑받기도 했다.

김수미는 “전을 몇 시간 부치고 있자니 허리가 너무 아프기에 시청자들에게 ‘그냥 사 먹으시라’고 했다”며 “나도 가끔 반찬집에 가서 사 먹는데 ‘수미네 반찬’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못가겠더라”고 웃었다. 그러면서 “요리는 스트레싱하면서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뉴 고민에, 장보기에, 셰프들과 레시피 공유까지 체력이 바닥날 법도 한데 그는 최소한 올 해는 ‘수미네 반찬’에만 몰두하겠다고 했다.

“내가 이렇게 배우 생활을 오래 했어도 ‘연기 오레 볼 수 있게 건강해달라’는 말을 별로 듣는 적이 없는데 ‘수미네 반찬’ 하면서는 ‘건강하게 오랫동안 프로그램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힘닿는 데까지 ‘수미네 반찬’ 해줄 거예요.”

처음부터 김수미 외에는 섭외할 주인공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문태주 PD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김수미의 열정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거들었다.

그는 “딱에 가면 항상 땀이 하고 계신다. 시장에 가서도 항상 전화를 주신다. 심지어 녹화할 때도 반찬을 싸 오셔서 나눠주신다.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게 해주시니 프로그램도 사랑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수미는 “언젠가부터 반찬이 조연으

로 밀려났는데 반찬이 주인공이라 하니, 그 기 확안이 참 맘에 들었다”고 문 PD와 ‘쿵쾅 호흡’을 자랑했다.

문 PD는 김수미가 만들어놓은 레시피 책이 조만간 정식 도서로도 발간될 예정인데, 책으로까지 만들 수 있을 만큼 방대한 양이기에 프로그램이 갈 길도 멀다고 강조했다. 최근 호평 받은 일본 특집에 이어 다른 나라 교포들을 만나기 위한 기획도 구상 중이다.

“외국 교포들에게 집반찬을 맛보게 해주고 싶다는 기획은 첫방송 전부터 생각했어요. 선생님도 계속 ‘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이후에 시청률도 더 오를 것 같아요.”(문 PD)

“꼬박 나흘 동안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병이 다 났는데도, 막 퍼주게 되더라고요. 외국 가서 모든 게 안 맞고 서러운데 엄마가 해준 음식 입에 넣으니 치유된다고 했어요, 정말로. 그 말이 모든 피곤이 다 풀렸어.”(김수미)

김수미는 마지막으로 함께 고생해주는 셰프 3인방과 장동민에게도 애정을 표현했다.

“여경래 셰프는 아무래도 구력이 있으니 집밥도 제일 잘하죠. 마카엘은 문화가 다른데도 열심히 하려고 따라 하는 거 보면 너무 예쁘고요. 최현석 셰프는 음식도 잘하지만, 무엇보다 방송을 잘 아는, 애교쟁이예요. 그런데 제일 자리 잡은 건 동민 씨야. 제일 재밌어.” /연합뉴스

## 양파 “매일 정오 라디오에서 만나요”

KBS2R ‘양파의 음악정원’

가수 양파(본명 이은진·39·사진)가 데뷔 22년 만에 처음 라디오 DJ에 도전한다.

양파는 1일부터 매일 낮 12시 KBS2라디오에서 ‘양파의 음악정원’을 진행한다.

양파는 최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2라디오 개편 설명회에 참석해 “데뷔 이후부터 늘 라디오 DJ 하는 것을 큰 꿈으로 간직해왔는데 이제야 시작하게 됐다. 믿고 맡겨주세요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라디오 키즈’로 소개하면서 “10년 전만 해도 ‘라디오 듣는 사람 없지 않아’ 얘기했는데 지금은 라디오만 아닐로그 장르가 하나의 취향이 돼가는 것 같다”며 “저는 LP, CD, MP3 등 모든 걸 경험한 축복받은 세대인 것 같다. 라디오 역시 ‘신해철의 밤의 디스크쇼’를 부모님 몰래 밤늦게까지 이불 속에서 들었을 만큼 사랑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음악정원’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가장 즐기고 심심한 순간에 숲속에서 새 소리, 물소리를 듣는 것 같은 방송, 피톤치



드 같은 방송을 전해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KBS 다큐 ‘순례-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

열여섯 소녀의 여정 담아 ... 11월 극장서 개봉

코리아UHD어워드 등 수상

KBS는 다큐멘터리 ‘순례’ 시리즈 중 ‘안녕, 나의 소녀 시절이여’(사진)를 오는 11월 극장에서 개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작품은 2017년 코리아UHD어워드와 2018년 한국가톨릭매스컴에서 각각 대상, 2018년 뉴욕페스티벌TV&필름상에서는 다큐 부문 금상을, 2018년 휴스턴국제영화제 다큐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김한석 PD가 연출한 이 다큐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반짝이는 시절을 보내던 열여섯 소녀 왕모가 소박한 행복마저 가슴 한쪽에 묻은 채 고단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 각자의 인생 여로에 놓인 우리 모두를 따스하게 위로하는 아름다운 힐링 에세이다.

이번에 포스터와 함께 공개된 ‘소녀의 여름’



티저 예고편은 왕모와 그의 귀여운 동생들의 한때를 담았다.

푸르른 들판에 둘러앉은 왕모와 두 남동생이 ‘씨뿌라’라 불리는 풀잎 열매를 먹으며 장난치며 해맑은 웃음을 짓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미소를 절로 자아낸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비밀과 거짓말(재)	4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살맛나는 세상	45 닥터 365 50 나도 엄마야
9	30 중계방송 국군 유해 봉환식	00 차탈래 부인의 사랑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30 MBC 뉴스 특보	50 SBS 뉴스특보 국군 유해 봉환식
10	25 무엇이란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25 기본 좋은 날	30 좋은아침
11	25 아생여정 (재)	00 러블리 호러블리(재)	30 숨바꼭질 (재)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3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열린공간 토크Talk(재)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를 행복아카데미 (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스페셜 55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50 전라도 매력청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00 뉴스브리핑
3	40 공감다큐, 사람(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사이닝스타 55 뽀뽀보 모야야 놀자	
4	00 사사건건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25 꾸러기 식사교실(재) 55 5 MBC 뉴스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30 6시 내고향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1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30 생방송 빛날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30 중계방송 간군 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30 중계방송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00 생활의 달인 스페셜 30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7	50 팔도밥상	50 끝까지 사랑	55 MBC 뉴스데스크	
8	10 국군의 날 특집다큐 2부작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좌충우돌 만국 유랑기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10	00 가요무대 진주 공연	00 러블리 호러블리	00 배드파파	00 여우각시별
11	00 KBS 뉴스라인	10 안녕하세요	10 지역MBC 공동기획 지역독립선언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국악한마당	35 비바 K리그(재)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이혜정의 밤 수프와 닭고기 밥 볶음>	16:45 덩동덩 유치원1~2(재)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일본 료칸 속으로-진짜 일본을 만나다>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15 마사와 곰
06:00 한국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7:30 띠띠뽀 띠띠뽀
06:2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스페셜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3:00 다큐 오늘	19:00 몬카트
07:30 띠띠뽀 띠띠뽀	13:10 고양이를 부탁해	19:30 EBS 뉴스
08:00 덩동덩 유치원1~2	13:40 배워서 남줄림(재)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8: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	14:30 몬카트(재)	20:40 세계테마기행 <자전거 타고! 에도로드 1부>
08:45 방귀대장 뽀뽀	15:00 마사와 곰 스페셜	21:30 한국기행 <가을섬,추사도-영랑회, 보물 캐는 날>
09:00 뽀뽀뽀 뽀로로	15:15 파프리카	21:50 EBS 다큐프라임 <중앙아시아, 살아남은 야생의 기록>
09:15 뽀로로와 노래해요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22: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부모성적표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15: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3:55 배워서 남줄림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뚝딱맨	
10:30 한국기행(재)	16:30 방귀대장 뽀뽀(재)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p>36년생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48년생 자신이 발원한 바는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60년생 불가피한 인연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72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84년생 한 곳으로 집중 되어야만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1, 17</p> <p>37년생 새끼가 찬 서리를 만나는 이치이니라. 49년생 아예 하지 않음만 못하다. 61년생 길조가 비추나 기운이 자주 바뀌는 흐름이로다. 73년생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85년생 절대로 순간적인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아니 되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17, 19</p> <p>38년생 관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50년생 성과 없이 유두무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62년생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타협할 수도 있다. 74년생 인간관계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마라. 86년생 이전 보다는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12</p> <p>39년생 할 말이 있다면 기탄없이 발언해야 한다. 51년생 보람찬 일들로 인해서 살맛나겠다. 63년생 스스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방도가 없다. 75년생 주체성과 독창성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87년생 생산성을 증폭시키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 20</p> <p>40년생 한 번에 끝낼 일을 나눠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52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자중하며 살펴봄이 유익하다. 64년생 균형을 잃는다면 부작을 부른다. 76년생 핵심을 찾아야만 결론에 도달한다. 88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행운의 숫자 : 36, 55</p> <p>41년생 머지않아 궁극적인 목표에 이른다. 53년생 가까운 장래에 될 것이니 철저히 준비하라. 65년생 관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느니라. 77년생 능력에 맞는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89년생 영광의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 행운의 숫자 : 96, 33</p>	<p>42년생 임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54년생 기본적인 바탕이 좋아야 추진되는 행국이 건설해지는 법이다. 66년생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78년생 바야흐로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90년생 한 가지 일에 전력투구해야만 성공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63, 34</p> <p>43년생 어렵잡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55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7년생 차이가 보인다. 79년생 단단히 매듭을 지어 놓자. 91년생 보기보다는 의외로 복잡하고 난해한 판도를 이루고 있다. 행운의 숫자 : 04, 06</p> <p>44년생 마음을 달리 먹는다면 기본 상황 일이 아니다. 56년생 상수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68년생 안에서는 조용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80년생 이타적 조치가 곧 자신을 이롭게 함이니라. 92년생 다지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2, 78</p> <p>45년생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57년생 결부 지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69년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실행해 보라. 81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93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9, 16</p> <p>34년생 예상해 왔던 구도와 동떨어지게 될 것이니 변화 추이를 지켜보라. 46년생 기회는 뜻밖에 왔다가 쉽게 사라질 것이다. 58년생 뜻하지 않은 행운이 따른다. 70년생 안정 궤도에 진입하라. 82년생 물이 흘러내리듯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0, 38</p> <p>35년생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47년생 수고로움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니 감수하라. 59년생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71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83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4, 02</p>
--	--